

친환경 일회용품 개발 주력 생분해성 용기 선도기업으로 세계 진출 계획

김억조 / (주)녹지글로벌 대표이사

다 | 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 소각 및 재생이라는 방법을 주로 활용해 왔지만 이것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전무한 일.

이런 상황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은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해 왔다.

국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친환경 일회용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주)녹지글로벌의 김억조 대표이사를 만나 견해를 들어 보았다.

김억조 사장은 “일반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전분을 첨가해서 붕괴·분해시키는데 반해 (주)녹지글로벌의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는 옥수수 국수를 생산하고 남은 옥수수대, 종피와 같은 부산물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며 그동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가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분해성·광분해성 일회용 용기제조 기술을 이용, 옥수수 부산물인 옥수수대를 비롯, 각종 종피를 분쇄하여 만든 식물입자를 기본원료로 식용성 교(접착제)를 첨가성형제로 압축하고 있다”면

서 (주)녹지글로벌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주)녹지글로벌이 독점적인 특허권 보유했다는 것과 생분해, 광분해 제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옥수수의 찌꺼기 활용으로 인한 원료수급 및 탁월한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SK건설에서 18년 동안 공사 수주 자재금액 산출 및 자재 조달 등 현장 관리 업무를 해온 김 사장이 생분해성 일회 용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상공회의소를 통해 새로운 발전 분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터였다.

김억조 사장은 지난 2001년 6월, (주)녹지

글로벌을 창립한데 이어 한·중 합작 국외 현지공장인 '연길삼현물산가공유한공사'를 설립해 (주)녹지글로벌에서는 자금 제공을 중국 연구소에서는 기술과 공장을맡는 합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생분해성 용기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가 국내적으로 완벽하게 자리잡지 못한 시점이라서 '내가 처음 개발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생분해성 용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씩 성과를 거둘 때마다 하얀 백지 위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김억조 사장은 중국 과학기술연구소와의 한·중 합작 현지 공장에 큰 관심을 놓치지 않으며 한 달에 보름정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저렴한 인건비를 고려, 중국과학원을 포함해 12군데 중국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중국내 생분해 용기 공장들과 조합을 결성, 생분해성 용기의 공동 연구 및 생산·판매를 합의해 중국 매체들에 커다란 이슈를 남기기도 했다.

김억조 사장은 생분해성 용기 사업에 뛰어들어 지난해 3월, 옥수수 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용기 재료 및 미생물과 합성수지 식물성 섬유를 복합한 용기재료의 제조방법

을 국내로 특허 출원했던 것을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꼽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투자 자금을 난항을 겪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김 사장. 하지만 그는 개발에 마케팅 능력을 보완, 투자·노력한 만큼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모든 포장재가 분해 가능한 재료로 대체되는 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는 앞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전해 미생물 분해를 이용한 친환경 일회용품 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합작 현지공장을 발전시켜 한국과 중국에 각각 경영체계를 자리잡아 이원화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재활용 관련 인증을 획득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주요도시에 대리점 구축뿐 아닌 북한지역에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녹지글로벌이 국내 생분해성용기 선도기업으로 해외진출까지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김억조 사장. 그의 발전과 더불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가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